

iM FX Brief

달러, 유가와 연준의 시간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국채금리 급등에도 달러는 강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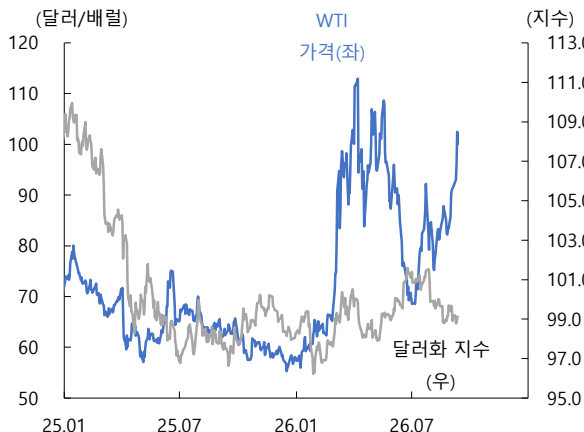
- 물가와 국채금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약보합세로 마무리함. WTI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상회하고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8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지표로 9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달러화는 약보합세를 보임
- 유로화는 ECB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유가 불안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전주대비 소폭 하락함
- 달러-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과 더불어 그 동안 엔화 약세에 베팅하던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청산된 영향으로 전주대비 하락, 즉 엔화 강세 기조를 이어감
- 위안화는 보합세를 유지함. 중국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로 내수 불안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지표와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정책에 대한 관망세로 위안화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함
- 호주 달러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 및 미 연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호주달러는 전주대비 소폭 하락함
- 달러-원 환율은 유가불안, 미국 국채금리 급등 및 외국인 주식순매도 지속에도 불구하고 엔 강세와 반도체 업황 호조 지속 기대감 등으로 전주대비 소폭 하락함

	9월 11일 종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9.1	-0.05	0.81
유로-달러	1.160	-0.13	-1.25
달러-엔	153.6	-1.70	-1.98
역외 달러-위안	6.71	0.00	-3.84
호주달러-달러	0.72	-0.47	7.43
달러-원	1,342.6	-0.56	-7.06

금주: 유가와 연준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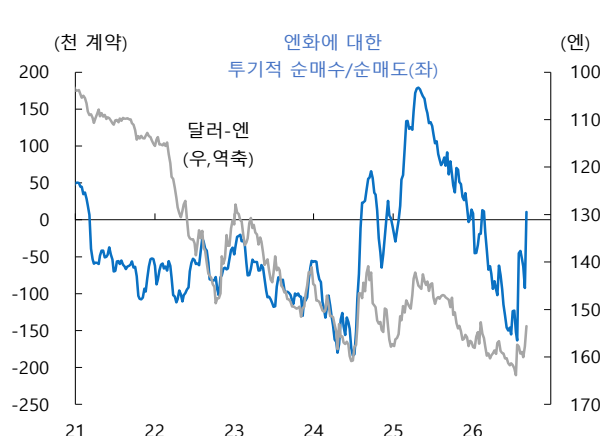
- 100달러 수준에서 등락 중인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여부와 더불어 9월 FOMC회의 결과가 달러화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특히, 미 연준이 9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달러화는 큰 폭의 상승 반전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9월에도 금리동결이 유지된다면 달러화 낙폭이 확대될 여지가 큼. 또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여부는 물론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우에다 총재의 발언 수위 역시 엔화 추가 강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것임
- 금주 달러-원 환율 예상 밴드는 1,310~1,370원으로 예상함

그림1. 달러화가 유가에 아직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유가 추가 상승시 달러화의 강세폭이 확대될 것임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엔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 순매도 포지션에서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됨. 엔화 강세 기대감을 반영하는 시그널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